

설 명절 예배 순서지

2026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559장	다같이
말씀 봉독	요한복음 17장 21-22절	다같이
말씀 선포	아버지와 아들처럼	인도자
주기도		다같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7:21-22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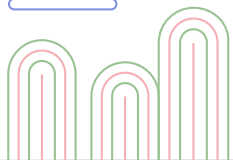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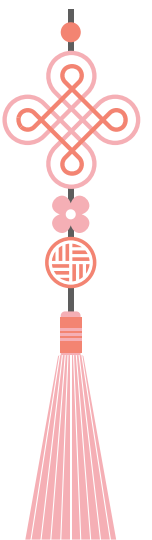


찬송가 반주QR코드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대한예수교장로회

송파제일교회

말씀: 아버지와 아들처럼

： 낭독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가족들의 눈을 맞추며 읽어주세요.
： 이 설교문을 그대로 낭독하셔도 좋고, 가족 상황에 맞춰 조금 수정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6년 새해 설날을 맞아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떨어져 지내다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고 앉으니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올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소망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 말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마음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으로서 언제나 함께하시며,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바로 우리 가정이 꿈꾸는 행복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보며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할까요?

첫째,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도 가끔은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왜 나를 무시하냐"며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도 다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시며,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이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것,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도 올 한 해,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난과 희생까지도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가족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실 때, 결코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가장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짐을 같이 들어주는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씩 희생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 가족이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서 참는 데도 한계가 있고,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혹시 교회가 낯선 분이 계실지라도, 오늘만큼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2026년 한 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보며 "너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보물이야"라고 축복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나의 든든한 울타리"로 여기며 존경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따뜻한 사랑이 우리 집 안방과 거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